

라인, 블록체인 리더십 이끌며 상생 플랫폼 지속 확장

생활 속 블록체인

5 네이버 <끝>

‘언블락’ 출범... 블록체인 본격화
유익한 플랫폼 위한 노력 박차

네이버는 지난해 자회사 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을 공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블록체인 관련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2018년, 블록체인 사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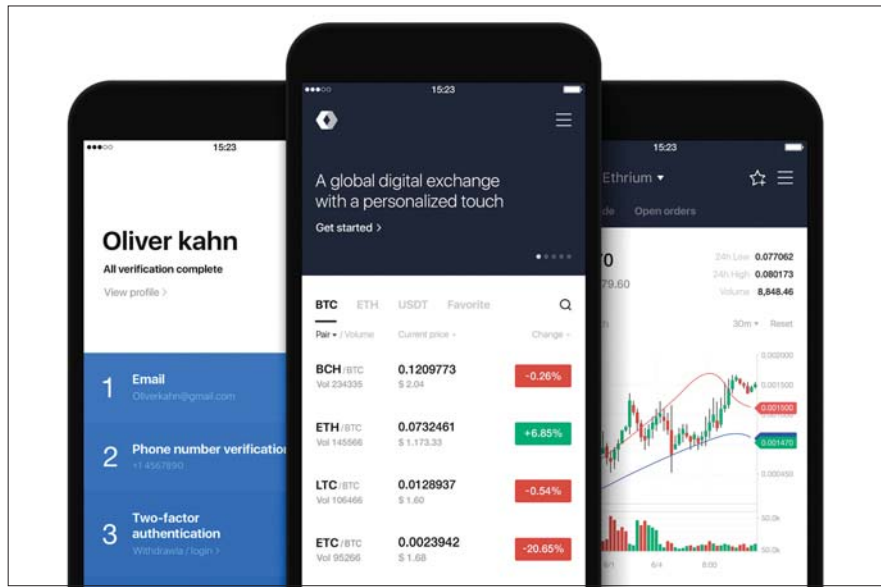
라인은 지난해 4월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언블락(unlock)’ 출범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라인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탕이 됐다.

이후 8월 라인은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과 암호화폐 링크를 일본에서 출시했다. 링크는 기존 암호화폐와 다르게 자금조달목적의 ICO(암

호화폐공개)를 진행하지 않고, 라인 생태계 내의 특정 서비스 이용을 통해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 ‘유저 보상’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링크와 연계된 디앱(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가입해 활동하면, 서비스에 참여한 이용자는 링크의 보상 정책에 따라 해당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링크체인은 라인 플랫폼 내의 디앱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일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링크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앱 서비스는 미래예측 플랫폼 ‘포캐스트’,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볼’, 상품 리뷰 플랫폼 ‘파사’, 식당 리뷰 플랫폼 ‘타파스’, 여행지 리뷰 플랫폼 ‘스텝’ 등 5종이다.

라인은 링크체인 공개에 앞서 7월에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운영을 시작했다. 비트 박스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모바일 앱 이용 화면.

다. 비트박스 설립 이후 라인은 트론(TRX), 아이콘(ICX), 이비코인(EBC) 등을 상장했으며, 현재 총 15개 언어와 30개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 제공과 투명한 거래소 운영,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협력 통해 경쟁력 ↑

라인은 블록체인 자회사 출범 이후 블록체인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업체, 프로젝트와 협력해왔다. 일례로 라인은 지난해 5월 블록체인 메인

넷 및 디앱 서비스 구축 등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과 함께 조인트벤처 ‘엔체인’을 설립했다. 엔체인의 라인과 아이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플랫폼 유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디앱 구현에 최적화된 ‘토큰 이코노미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그레이해쉬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레이

해쉬는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글로벌 정보보안 회사다. 그레이해쉬는 라인의 사내조직 그레이랩(GrayLab)으로 재편되어 메신저, 핀테크, AI,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라인 자회사 LV C, 노무라 홀딩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금융 비즈니스 제휴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라인은 향후 자사가 보유한 수억명 사용자와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좋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라인 링크데브 2018’에서 언체인 이훈규 대표는 “라인은 링크를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닌, 사용자들의 기여에 보답하기 위한 상생 에코시스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및 중소기업자들이 링크체인 안에서 좋은 디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들이 라인의 토큰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체험하며 함께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최신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롯데 ON’ 2023년 거래액 20조, e커머스 1위 발판 마련

론칭 한 달, 거래액 약 30% 늘어
400만명 접속... 신장률 60% 기록

롯데쇼핑이 지난 4월 1일 론칭한 ‘롯데 ON’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2023년 거래액 20조, 국내 e커머스 1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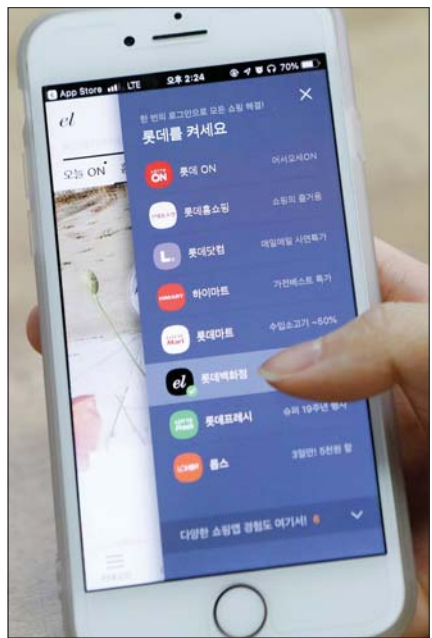
롯데는 온라인 사업을 향후 유통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2020년까지 온라인 거래액 10조원, 2023년까지 20조원을 달성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업계 1위 자리를 굳힐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월 ‘롯데e커머스 사업본부’를 출범시키고 총 3조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계열사별 온라인몰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에는 롯데 유통 7개사(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하이마트, 룩스, 닷컴)의 온라인 몰을 로그인 한 번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통합 검색 및 추천 기능이



롯데 ON. /롯데쇼핑

다해진 ‘롯데 ON’ 서비스를 론칭했다. 1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 ON’ 론칭 이후 한 달 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일 평균 방



롯데 ON. /롯데쇼핑

문고객(트래픽)은 400만 명에 육박해 전년 대비 60% 넘는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론칭 당일인 4월 1일 방문객은 56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7

개 앱을 다 경험해 본 고객은 6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롯데 ON’ 서비스 론칭 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의 신규 유입이 두 배 가량 많았다. 4월 1일 론칭 당일 신규 유입 고객 중 온라인에서의 유입은 30% 수준인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유입은 70%에 달했다.

일반적인 온라인 기반의 e커머스가 온라인 상의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펼치는 것과 달리, 롯데는 국내의 1만 10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오프라인 고객도 함께 e커머스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롯데 ON 앱(App)’은 롯데 유통 7개사의 모든 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One App)이다. 롯데는 ‘롯데 ON 앱’이 3900만 명의 롯데멤버스 회원과 1만10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 2000만

개의 상품 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O4O(On-line for Off-line) 채널 구축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ON’은 향후 AI 플랫폼 기반의 차별화된 구매방식으로 떠오르는 보이 스커머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e커머스는 최근 구매성향 분석기술과 상품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AI 쇼핑 어드바이저 ‘샬롯(Chalotte)’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AI 관련 R&D 전문 인력을 100여 명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롯데 유통 7개사의 지난해 온라인 거래액은 6조 3000억 원으로 실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백화점, 마트, 슈퍼 등 기존 1만 10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구축해 배송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기존 ‘스마트픽’ 서비스를 뛰어 넘는 계열사별 경계 없는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자율주행·수소기술 등 핵심기술 표준화에 2751억 투입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우리 표준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

정부가 자율주행, 수소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국가 표준을 만드는 데 275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총예산 2천751억원 규모의 9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자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

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무선충전, 전기 이륜차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과 국내 충전 인프라간 호환성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 표준을 만든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이들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자 민간이 참여하는 ICT 표준화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표준화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확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이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개

발 활성화와 더불어 약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도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해 물류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표준과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 유망 가공식품류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 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을, 해양수산부는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